

하인두암에서 선행항암치료 및 방사선 치료에 의한 후두의 보존

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, 치료방사선과학교실[†]
 왕수전 · 이병주 · 이석훈 · 이현순 · 서철주 · 김동원[†] · 권병현[†]

배경 및 목적 : 진행된 하인두암의 치료는 후두전적출술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수술과 수술 후 방사선 치료가 전형적인 치료로 인정되고 있다. 이에 저자들은 진행된 하인두암에서 선행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병행한 결과와 수술 및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결과를 서로 비교하여 선행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의 유용성과 후두보존의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하고자 하였다.

대상 및 방법 : 본원에서 하인두암으로 진단받은 64명 중 cisplatin과 5-FU를 이용한 선행항암화학요법 2~3회 후 방사선치료를 시행받은 33명을 화학요법군으로 근치적 목적으로 수술 후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은 31명을 수술군으로 분류하여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. Kaplan-Meier Method를 이용하여 생존율을 구하였으며 구간 생존율은 Log-Rank method로 비교하였다.

결 과 : 3년 생존율은 화학요법군에서 42%, 수술군에서

45%이었고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. Recurrence rate은 화학요법군에서 54% 수술군에서 52%이었다. 화학요법군에서 ECOG 등급 3이상의 심한 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는 stomatitis 11례(34%), leukopenia 6례(18%), anemia 4례(12%), thrombocytopenia 4례(12%), 오심과 구토 2례(6%)이 발생하였다. 선행항암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시행받은 33명중 15명이 후두를 보존하여 후두 보존율은 45%이었다. 수술후 방사선치료를 시행한 경우는 31명중 1명이 보존되어 후두 보존율이 3%이었다.

결 론 : 선행항암화학요법후 방사선치료한 경우와 수술후 방사선치료한 경우를 비교할 때 생존률과 recurrence rate의 차이가 없었다. 그러므로 하인두암에서 후두를 보존할 수 있는 선행항암화학요법 후 방사선치료가 추천할만한 방법으로 생각된다.